

자메이카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1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9

자메이카 (Jamaica)

I. 일반개황

면적	11천 Km ²	G D P	148억 달러(2008년)
인구	2.72백만 명(2008년)	1 인 당 GDP	5,455달러(2008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입헌군주제)	통화단위	Jamaican dollar(J\$)
대외정책	우경중립, 비동맹	환율(달러당)	72,80(2008년)

- 자메이카는 카리브해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1/20, 인구는 2.7백만명(90% 이상이 흑인)인 섬 국가임.
- 주요 수출품목은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설탕, 바나나 등이며 수출구조가 1차 산품 위주로 구성 되어 있어 국제가격 시세 변동에 취약하며, 1인당 GNI가 3,300 달러 내외로 저소득국에 속함.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1.4	1.0	2.7	1.4	-0.4
재정수지 / GDP	-4.4	-2.9	-4.5	-4.0	-6.7
소비자물가상승률	13.6	15.3	8.6	9.5	22.0

자료 : IFS, EIU

□ '04-'08년 연평균 1.2%의 경제성장률 기록

- 자메이카 경제는 우호적인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의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인프라 파괴, 농산물 및 보크사이트 생산 축소, 내수 침체 지속 등으로 '04년 이후 연평균 1%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전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03년 0.7%, '04-'07년 5.1%였는데 반해, 동기간 자메이카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5%에 그침.

- 2006년에는 관광업 및 광업에 대한 FDI 증가, 농산물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7%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07년 들어 허리케인 피해와 이에 따른 작황 부진, 광물 생산 부진 등으로 수출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1.4%로 낮아졌음. 2008년에는 대미 수출, 관광수입 및 해외거주자 송금액 감소 등으로 2000년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물가상승률은 두자리대의 높은 수준 유지

- '90년대 중반에는 물가상승률이 100%에 달하기도 했으나, 긴축 통화 정책, 환율 관리, 시장 개방을 유동성 확보 등의 조치로 98년 물가상승률을 한자릿대로 축소하는 데 성공하였음. 그러나 2003년 이후 재정적자 확대와 외채 과중한 부담 등으로 자메이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며 수입 가격이 상승,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상승하였음.
- 2006년과 2007년에는 달러 약세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은 환율 안정세로 물가상승률이 9%대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해외송금액 유입 감소와 수출 급감 등으로 환율 약세가 지속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인 22%를 기록하였음. 2009년에는 내수 위축 및 국제 원자재 시세 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져 한자릿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 자메이카는 세수 확대*, 정부 지출 축소 등 긴축재정적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과중한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음

* 현재 정부 수입 중 세수는 GDP의 30%로, 지역내 GDP대비 세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나, 외채원리금은 연간 재정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품(농산물, 원유) 가격 급등, 2007년의 태풍피해, 2008년의 미국발 금융 위기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09년에는 수출 감소, 관광산업 및 내수 위축 등으로 정부 수입이 축소되어 GDP 대비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경제 구조가 소수의 1차 산품으로 이뤄져 가격 변동에 취약

- 과거 자메이카 경제는 봉제업 등 일부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수년간 통화가치 고평가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크게 위축되어,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설탕 등 1차 산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전략하였음.
- 2006-08년간 국제 원자재 시세 상승으로 알루미늄의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불안한 기후여건에 따른 흉작 지속으로 설탕, 바나나 등 농산물의 수출 증가세는 매우 미미한 편임.

□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 심화

- 관광업이 자메이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62%로 다소 과중한 수준이며, 제조업 및 농업 부문 위축으로 인해 관광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주요 분석기관들은 당분간 미국 경제 심화 등으로 크루즈 관광의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자메이카 통화의 고평가로 인해 인근 중미국가와 도미니카공화국 등에 비해 관광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 추세임을 감안하여, 당분간 관광업의 성장세 둔화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실제로 자메이카에 대한 2009년 1월중 동국의 크루즈 관광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이상 축소되었음.

□ 대외채무 축소가 정책의 최우선순위

- 자메이카 정부는 대외채무 축소를 정책의 최대 우선순위에 놓고 재정 및 통화정책을 추진중임. 연간 재정지출의 50%를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에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외채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며, 2007년에는 GDP대비 총외채 비중과 D.S.R.이 각각 70%, 20%를 상회한 바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2008년중 총외채비중, D.S.R.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원 부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외채비중은 재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정수지 적자폭도 8%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 IMF('08. 12)는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채규모를 축소하려는 동국 정책기조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

□ 금리 인상 등 이자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20%대에 달하는 물가상승률 기록

- 정부는 인플레이 억제 및 외국투자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2008년 중 22%의 높은 기준금리를 설정한 바 있음.
- 최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금리 인하시 외자 유출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이에 따른 외채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여, 정책 당국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509	-1,072	-1,183	-1,744	-3,217
경 상 수 지 / G D P	-5.0	-9.6	-9.9	-13.5	-21.7
상 품 수 지	-1,945	-2,581	2,943	-3,563	-4,806
수 출	1,602	1,664	2,134	2,226	2,354
수 입	3,546	4,246	5,077	5,789	7,160
외 환 보 유 액	1,847	2,170	2,318	1,879	1,767
총 외 채 잔 액	6,482	6,557	7,994	9,658	10,195
총 외 채 잔 액 / G D P	64.0	58.8	66.7	74.9	68.7
D. S. R.	20.5	22.4	16.0	21.8	18.9

자료 : IFS, EIU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확대

- 2004년 5%대였던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이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인해 2007년 13.5%, 2008년에는 21.7%까지 확대됨.
- 2009년에는 유가 하락 및 수입 수요 감소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경기 침체 지속 여부에 따라 과거 수년간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에 크게 기여했던 관광업 수입 및 해외거주민 송금액 등도 축소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 적자 감소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부족 문제 지속

- 외환보유액은 2006년 23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계속 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04년 3.6개월에서 2008년 2.2개월로, 수입 거래대금 확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외채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

-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4년 155%에서 2007년 177%, 2008년 19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GDP대비 총외채잔액도 2008년 69%를 기록(2007년 75%)하며, 2004년 대비 증가하였음.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도 2004년의 59.5%에서 2006년 50.6%로 일시 개선되었다가, 2007년 77.8%, 2008년 82.7%로 큰 폭으로 상승함.
- 한편, 채무상환비율(DSR)은 2004년-2007년 연평균 20%에서 2008년 18.9%로 4년 연평균 대비 1%, 전년대비 3%가량 축소되었으나, 경제규모 및 수출규모에 비해 외채부담이 과중한 편임.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후 양원제 내각제 유지

- 1962년 영국의 자치령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국민당(PNP)와 노동당(JLP)간 비교적 안정적인 양원제 내각책임제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1989년 이후 18년간 국민당(PNP) 정부가 지속되었으나, 2007년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

- 국민당 정부는 1989년부터 18년간 5차례에 걸쳐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2000년 초반부터 이어진 경기침체, 실업증가, 범죄율의 증가, 장관 사임으로 귀결된 다수의 비리 사건 등으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여, 2007년 선거에서는 노동당(JLP)에 참패함.

- 노동당은 Bruce Golding 수상을 중심으로 2007년 선거에서는 부패 척결, 치안 유지, 실업률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하원에서 60석중 33석을 차지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집권당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치안 악화 등으로 공약 이행에 대부분 실패하여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친서방 중심의 국제관계

- 자메이카는 1973년 설립된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의 리더로서 북미와의 자유무역협상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EU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통한 경제협력 및 마약문제 해결에 노력중임.
- 아울러 Petrocaribe 신설에 따른 베네수엘라와 관계 증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친서방적인 정책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임.

2. 사회 및 소요사태

□ 범죄율 상승 등 사회불안 요인 내재

- 야당을 비롯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세력들의 영향력이 현재로서는 미약한 실정이며 일반국민들도 계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정치권에 불신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악화되지 않는 한 사회폭동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임.
- 단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라 살인, 마약밀매, 절도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주요 신용평가기관,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결정

- 2009년 3월, S&P와 Moody's는 미국 경기 침체 지속으로 수출 및 관광업 위축,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감소,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 전망 등을 근거로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나, OECD는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OECD : 6등급 ('06. 6) → 6등급 ('07. 6) → 6등급 ('08. 6)

* S&P : B ('03. 7) → B- ('09. 3)

* Moody's : B1 ('03. 5) → B2 ('09. 3)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 US EXIM : 한도범위내 전액인수가능
- *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능력은 다소 악화 추세

- 동국은 1984년 이후 1993년까지 7차례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음.
- 90년대 초반 GDP의 147%에 달하던 외채규모는 200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50%대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글로벌 본드 발행, 유상차관 도입 등으로 인해 외채 잔액이 크게 늘면서 2007년에는 재차 70%대로 상승하였음.

-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다소 과중한 수준(D.S.R. 19%정도)이며, 최근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동국의 외채상환능력은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는 미미하나, 상품수지 흑자 기조 지속

- 우리나라의 대 자메이카 교역규모는 2008년 3천 4백만달러 규모로, 수출 28백만달러, 수입 6백만달러로 매년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고 있음. 대 자메이카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 전자기기, 자동차, 고무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고철, 알루미늄, 커피 등임.
- 한편, 자메이카는 외채상환능력 부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EDCF 지원대상국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2009년부터 재편입되어 지원이 가능해짐.

V. 종합 의견

- 자메이카 경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외채이자비용지급 확대에 의한 재정수지 적자 심화, 잦은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농산물 수출 및 인프라 복구 지연, 보트사이트 생산 부진 등으로 우호적인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1-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었으며, 2008-09년에는 대미 수출 및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급감, 관광업 위축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자메이카는 전통적으로 양당제 의원 내각제의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2007년에는 18년간의 국민당 집권이 종식되고 노동당(JLP) 정부가 들어선 상황임.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공약으로 내세운 고용촉진, 치안강화, 부패척결 등의 고질적인 사회 병폐가 전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집권당의 지지도가 크게 낮아진 상황임.

- 만성적인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2005년까지 개선추세를 보이던 외채상황이 조금씩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S&P,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평가 하향 조정 움직임 등을 감안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C3에서 D1으로 한단계 하향 조정코자 함.

문의 : 전문연구원 박현희(☎3779-6676)

E-mail : sarapark@koreaexim.go.kr